

한기주·김진우 어디 갔나?

■ KIA 마운드 빠격대자 팬들 궁금증 증폭

한, 허리 통증 마무리 이탈…2군서 뜻매 복귀 불투명

김, 돌출행동 잇따라 임의탈퇴 조치…팬들도 등 돌려



<한기주> <김진우>

잘 나가던 KIA 마운드가 빠격거리면서 팬들 사이에 부찌 이미지 오르내리고 있는 두 선수가 있다.

프로야구 역대 신인 최대 계약금 1·2위에 나란히 올라 있는 한기주(10억원) 그리고 김진우(7억원)가 그 주인공이다.

동성고와 진흥고 출신의 한기주와 김진우는 고교 시절부터 프로야구 마운드를 평정할 재목으로 평가받은 '초특급 투수'였다. KIA는 두 선수의 명성에 걸맞은 푸짐한 계약금으로 프랜차이즈 스타를 꼽았다.

하지만 4강 싸움에 속도를 내고 있는 KIA 마운드에 두 선수는 없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한기주는 병역혜택을 받으며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밟았다. 동시에 대회 기간 최악의 부진 속에 프로야구 최고의 강속구 투수라는 자존심에 금이 갔다.

그리고 전지훈련지에서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공 한번 제대로 만져 보지 못했던 한기주는 개막 후 11경기에서 6.08이라는 마무리 탑지 않은 평균자책점을 남기고, 지난 9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군으로 내려갔다.

한기주가 떠난 자리엔 1승2패2세이브 4차례의 블론 세이브가 남았고, '국민투수' 윤석민이 마무리로 투입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개막 후 이어진 부진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한기주는 암울 전 구단 측에 선발 보직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팀을 뒤흔들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팔꿈치 수술 후 선발을 하고 싶다고 의사와 피력했던 한기주가 다시 한 번 고집을 피운 것이다.

마무리의 갑작스런 이탈로 마운드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얘기에 KIA 팬들 사이에는 한방탕 설전이 오갔다.

입단 초기 류현진이 프로야구 최고의 좌완 에이스로 우뚝 선 것에 반해 팀 상황

때문에 뒷문만 지켜온 한기주의 '욕심'을 이해한다는 팬들의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팀의 상황을 고려해 않은 프로답지 않은 처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설상가상 지난 24일 첫 2군 등판에서 신통치 않은 투구를 선보이면서 한기주를 향한 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콤오픈에서 박상현이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1억3천122만원의 상금으로 순식간에 2위로 뛰어올랐다.

이번 시즌 상금 1억원을 넘긴 선수는 둘밖에 없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상금 부문의 초반 판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배상문이 받으면 독주 체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박상현이 차지하면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서승원기자 swseo@

KPGA '레이크힐스 오픈' 내일 순천서 개막

SBS코리안투어 KPGA '2009 레이크힐스 오픈'이 28일부터 4일간 레이크힐스 순천 CC(파 72·7천130야드)에서 개최된다.

총상금 3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국내 정상급과 외국 선수 등 140여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최경주 재단, 완도 28개 초교에 '희망노트' 전달

농어촌 지역 어린이 지원사업을 해온 최경주재단은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직접 쓴 격려의 글이 담긴 NIE(신문활동 교육) 노트를 완도 지역 28개 초등학교에

이번 대회에서는 배상문(23)과 박상현(26·양드래깅골프)의 시즌 초반 상금 부문 선두 경쟁이 최대의 관심 사항이다.

지난 17일 끝난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배상문이 1억7천145만원으로 상금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막을 내린 SK텔레

답았다.

최경주재단은 10월까지 NIE 수업시 소년한국일보를 활용한 결과물을 이번에 나눠 준 노트에 적어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한 어린이 중에서 '최고의 NIE 학생'을 선정, 오는 11월 열릴 재단 창립행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경주는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NIE 노트에